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31과.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분명히 예언함

[살후2:1-4]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오늘날 교회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아주 심각하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때 말세에 속지 않는 바른 성경적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기독교 내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심각하게 된 것은 제수이트(Jesuit)의 적그리스도 해석이 개신교내로 흘러들어오면서 생긴 오류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적그리스도와 일반 기독교가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지 역사적 발전 과정과 더불어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보도록 하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666과 맞물려 기독교 사회에 심각한 오류를 이루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적그리스도론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1.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신상

[마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살후2:3,4]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하여 예언하셨다. 예수께서는 말세에 대한 사실을 묻는 제자들에게 다니엘의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고 하셨다.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그 성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살후2:3,4절에 있는 말씀은 마24:15과 단7:25, 9:27의 말씀을 종합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신 말씀이다.

여기 지적인 적그리스도의 신상을 차례로 정리하면 이렇다.

- 1) 불법의 사람.
- 2) 멸망의 아들
- 3) 대적하는 자
- 4) 하나님 성전에 안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

2. 적그리스도가 가진 사상들

[요일2:21,22]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앎을 인함

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22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일4:2-6]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5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이1:7,8]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8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어떤지 밝혀놓았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며, 다음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 시인한다는 말은 “호몰로게오(ὁμολογέω)”인데 고백한다는 말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사상으로 고백하지 않고 또 생활로 고백하지 않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입으로는 고백을 해도 교리와 행동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사도요한이 살아 있을 때에 이미 많이 일어났다.

[요일2:18]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은 적그리스도이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이런 특정한 존재가 나타날 것을 계시하며, 예수께서도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때에 대하여 지적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는 존재이다. 문자와 교리 상으로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실상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말씀에 지적한 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3. 적그리스도 신분에 대한 오해

교회 역사에서 적그리스도의 신분을 오해하는 일은 반종교개혁 운동과 더불어 일어나고,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 신학자들의 활동으로 온 기독교에 편만하게 되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 9:24-27을 잘못 해석하였는데 특히 27절의 한 이레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였다.

[단9: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해석을 그릇하도록 한 계기는 종교개혁이었다. 1517년 10월 31일에 뮌헨베르그 교회당

문에 95개조를 쓴 패를 붙이므로 종교 개혁의 기치가 들렸다. 그리고 루터는 교황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직설적으로 설교하였다. “마틴 루터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본 첫 번째 사람이다. 처음에 그가 요한계시록의 가치를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후 그는 그 책에서 사단을 비밀리에 섬기는 기만적인 적그리스도로서의 로마 교회에 관한 계시를 보게 되었고 그 견해가 모든 개신 교회의 교리가 되었다.”(Newsweek, 1999년 11월 1일자 71쪽). 1520년 8월 20일에 루터는 선언했다. “우리는 교황권이 진정한 적그리스도의 보좌임을 확신하노라”(Le Roy Froom, *The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vol. 2, 121p).

개혁자들의 이런 선언과 공세를 대항하기 위하여 퇴역 군인 익나티우스 로올라(Ignatius Loyola 1491-1556)가 1534년 8월 15일에 예수회를 창설하였다. 이들의 활동을 반종교개혁이라고 한다. 교황청은 1545년-1563년까지 트렌트에서 공의회를 열고 반종교개혁 결의를 다짐하였다. 예수회에게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연구를 위탁하였고 예수회는 명민한 두 신부에게 이것을 맡겼다. 루스 디 알카잘(Luis de Alcasar 1554-1613)과 프란시스코 리베라(Francisco Ribera 1537-1591)이다. 알카잘은 과거적 해석법을 적용하여 다니엘과 계시록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교황권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석하는 책 출판, 리베라는 1590년에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출현하는 어떤 개인이라는 미래적 해석법을 창안하여 계시록 해석을 출판하였다. 알카잘의 과거적 해석법이 미친 영향보다 리베라의 미래적 해석법이 미친 영향이 훨씬 크다. 그것이 세대주의 해석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미래적 해석법이 개신교계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 해석은 개혁기 300여 년 동안 개신교에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800년대에 사무엘 로피메이트랜드(Samuel Roffey Maitland 1792-1866) 박사가 캔터베리 대주교의 사서(Librarian)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도서관에서 리베라의 책을 발견하고 단번에 빨려들었다. 그리고 장차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개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10여 년 동안 소책자로 반종교개혁적인 글을 발표하여 퍼뜨렸다. 그 후 더블린 대학의 히브리 교수 제임스 H. 타드(James H. Todd)가 메이트랜드의 사상을 이어받아 미래해석법 책을 출간하였다. 다음은 옥스퍼드 운동의 지도자인 존 헨리 뉴먼(John Henry Newman 1801-1890)이 이 해석을 옹호하고 다음은 장로교 목사 에드워드 얼빙(Edward Irving 1792-1834)이 이었으며, 다음은 유명한 존 넬슨 다비(John Nelson Darby 1800-1882)이 나타났다. 다음은 다비에게 영향을 받은 미국 남 침례교 목사인 사이리스 잉거슨 스코필드(Cyris Ingerson Scofield 1843-1921)이다. 그는 1901년에 스코필드 해설 성경을 발행하여 미래주의 해석법을 온 세상에 펼치는데 일등 공신이 되었고, 예수회의 반종교개혁이 소위 개신교회에 침투하는데 성공하였고 적그리스도는 그 정체를 교묘히 숨기는데 성공하고 있다.

다비는 플리머스 형제단의 지도자로서 세대주의를 확장한 사람이다. 그는 이 사상을 전하기 위하여 여섯 번이나 미국 순회 여행을 하였다.

4.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연대 해석의 오류

이 사상의 핵심은 다니엘 9장 70주일 해석에 있다. 27절의 한 이레에 대한 해석이다. [단9:26,27] 육십이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

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위에 말한 사람들은 62 이레 후에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말을 69이레와 70이레 사이의 공백기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 예수 재림 직전에 한 개인이 나타나 적그리스도로 군림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은 아주 틀렸다.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하여 사도 요한의 생존시에 이미 있다고 했고 바울도 그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는 계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70 이레는 7 이레와 62 이레와 1 이레로 세부분으로 되어 있다. 세대주의 학자들은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62 이레와 1 이레 사이에 긴 공백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단9:26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라고 한 한 왕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라는 말씀 중에 “그”를 “한 왕”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왕이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말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1 이레의 절반, 곧 7년의 절반인 3년 반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 해석은 62 이레와 마지막 1 이레 사이의 공백 기간이 70 이레 전 기간의 몇 배가 된다. 왜 70 이레를 그렇게 떼어서 해석해야 하는지 이유가 없다. 이 기간은 계속되는 기간인 것이다. 이것은 민족적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한 연속적인 기간인 것이다.

더구나 “그”와 “한 왕”은 같은 존재일 수 없다. 그는 한 왕을 받는 대명사가 아니다. 26절에 한 왕은 백성들이 누군지 지적하는 관형사일 뿐이지, 그의 본명사가 될 수 없다. 즉 성소와 성읍을 훼파하는 백성이 그 왕에게 속한 백성임을 지적하는 역할 밖에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의 “그”라는 대명사는 백성을 받을 수 있으나 왕은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백성들은 복수(複數)이고 “그”는 단수 대명사이다. 그러므로 “그”는 백성들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가 아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인가? 25절부터 27절을 연속하여 읽으면 “그”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 왕”이다.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27절의 그 곧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1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말은 그 1 이레의 절반이 되는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때까지 성전에서 행해지던 모든 제사와 예물의 실상이 하나님께 드리지므로 더 이상 지상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금지한다”는 말은 “샤바트”로서 쉬게 한다는 말이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으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속죄를 위하여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데서 쉬게 된다는 말이다.

세대주의 자들은 이것을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그 적그리스도가 7년을 통치하며 이 지상을 대환난 중에 몰아넣는데 그 7년 중 전 3년 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그래도 계속하면 후 삼년 반 동안 대 핍박으로 죽인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7년 대환난이 시작하기 직전 모든 그리스도인이 휴거되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사상을 소설로 쓴 사람이 할 린드세이(Hal Lindsey)이다. 이 사람은 남침례교 신학을 졸업한 침례교 목사이다.

할 린드세이 The Great Planet Earth of The Later(마지막 때의 위대한 지구)=지상 최대의 사건 휴거는 1970년대에 출판되어 3천 만부 이상이 팔린 종말을 소재로 한 소설인데 이것은 휴거설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일등 공신이 되었고, 30여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뉴욕 타임스는 “수 십 년 만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다.”라고 격찬을 한 책이다. 이 책으로 미래주의 해석법은 어른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팀 라헤이어(Tim LaHaye), 제리 켄킨스(Jerry Jenkins) 공저인 “Left Behind”가 인기 있게 팔린다. 린드세이의 뒤를 이은 종말론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이것들이 다 세대주의 자들의 종말론을 기초로 쓰인 책들인데 9권까지 나왔다. 그것은 70 이레의 마지막 한 이레가 기초요 배경이다. 이 리베라로 시작한 미래주의 해석법은 이제는 기독교 종말론을 지배하는 거인이 되어 대부분의 개신교 학자들도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적그리스도가 역사의 가장 최종 시점에 나타나는 어떤 초인적인 개인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오류로서 이 적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나고 요한일서에서 지적하며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친히 지적한 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한다. 그것은 이미 공부한 작은 빨 그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해석 원칙은 역사주의 해석법이고 그것은 개혁자들의 원칙이기도 하였으며, 개혁의 뒤를 이은 남은 자손들의 해석 원칙이기도 하다.

5. 적그리스도의 행사

[단7:25]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단8:10-12]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살후2:3,4]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승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위의 말씀들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사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 2) 성도들을 핍박한다.
- 3) 때와 법을 변경하려고 한다.
- 4) 군대의 주재를 대적한다.
- 5) 매일의 제사를 자기가 차지한다.
- 6) 성소를 허문다.
- 7) 진리를 땅에 던진다.
- 8) 배도한다.
- 9) 불법하고 멸망하게 한다.
- 10)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미 공부한 사실들에 의하여 이런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오해의 여지없이 분명히 알 수 있다. 그것은 교황권이다. 그것이 벌써 자기 때, 곧 성경에 예언된 그 때에 나타나 군림하고 있는데, 기독교

는 아직도 말세에 7년 대환난 때에 나타날 어떤 개인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 캄캄하고 답답한 상태가 아닐 수 없다.

6. 우리가 해야 할 일

1)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구할 것.

[엡1:17-1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약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2) 예언을 부지런히 살필 것.

[벧후1:19]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샅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벧전1:10-12]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3) 깨어 있으며 예비하는 삶을 살 것.

[마24:42-44]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43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29:9-13]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10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11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12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13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딤후1:18,19]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깨어 있는 것은 계시를 바르게 아는 것이며 그 깨달은 계시를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다. 사단의 속임수는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택한 자라도 미혹될 수 있다(마24:24,25).